

전일동향

전일대비 4.60원 하락한 1,413.7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418.40(15:30 기준) 대비 0.10원 상승한 1,418.50(06: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계속해서 나오는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에 하락하며 전일대비 4.60원 하락한 1,413.70원에 종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9.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91.12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18.50	1419.80	1410.00	1413.70	1415.00
	엔화	891.75	892.36	884.58	891.12	-
	유로화	1639.43	1640.25	1626.62	1632.85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54	-2.43	-6.19	-13.12
	결제환율(수입)	-0.22	-1.24	-4.09	-9.6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CPI 관망세에...1,41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7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416.00, 15:30 기준) 대비 4.35원 하락한 1,410.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 7월 CPI 관망세 속 유가 상승에 따른 위험선호 둔화에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 간밤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대한 긍정적 소식이 전해졌으나, 이후 이란의 강경 대응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에 위험회피 심리가 재부상하며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금일 달러/원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달러/엔이 159엔대까지 올라온 점이 달러/원 상방을 추가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금일 저녁 예정된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방향성 베팅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수출업체 환전과 기업 외화자금 환류 중심의 달러 공급이 상단을 강하게 누르고 있어, 상승 압력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05.75 ~ 1418.25 원
체크포인트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35.16 억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35원 ↓
	美 다우지수 : 53791.85, -184.13p(-0.34%)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90.73 억달러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97 억원